

'고려인 디아스포라 동행열차' 탐방단 연해주 도착 다양한 행사 가져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사업으로 광주·전남 유력인사들과 광주고려인마을이 추천한 김윤리아씨가 참여하는 '아픈기억, 꿈꾸는 희망! 고려인 디아스포라 동행열차' 탐방단(단장 박용수)이 지난 20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했다.

이날 연해주에 도착한 탐방단은 고려인 강제이주의 길을 따라 고려인들의 망향의 고향인 원동에 도착, 블라디보스톡 혁명광장, 신한촌 기념비, 구개척리, 조명희 문학비, 서울거리 등을 돌아왔다.

특히 신한촌에서는 1930년대 낯선 이국땅에서 숨겨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고려인들을 위해 추모식과 추모음악회도 가졌다.

또한 이상설 선생 유적지, 발해성터, 최재명 선생 거주지 등을 돌아보고 고려인 문화센터에서 고려인과 모임을 가졌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본격적인 연해주는 1920년 일제의 독립운동본거지 신한촌 습격사건과 1921년 지유시 사변으로 독립군 약화, 그리고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 39년 사할린 징용을 거치면서 연해주에서 고려인의 뿌리는 완전히 뽑혀 버렸다. 그것은 곧 항일 독립운동의 약화였고, 고려인 수난사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뿌리없는 민족'이라며 차별과 박해가 이어졌고, 최근 꿈에



연해주에 도착한 탐방단은 고려인 강제이주의 길을 따라 고려인들의 망향의 고향인 원동에 도착, 블라디보스톡 혁명광장, 신한촌 기념비, 구개척리, 조명희 문학비, 서울거리 등을 돌아왔다.

그러던 조국을 찾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할벗은 동포는 필요없다'며 차별과 냉대를 뒤여넘어 온갖 이유를 들어 강제 추방을 일삼는 현실에 깊은 아픔을 주었다.

연해주 탐방을 마친 일행은 22일 새벽 1시 우스리스크역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탑승해 이르쿠츠크, 노보시비리스크를 경유해 카자흐스탄 우슈토포, 알타이까지 이동했다.

박용수 탐방단장은 "고려인처럼 강제

적으로 화물차에 실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로망과 영감이 있으리라 생각돼 설레임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탐방단에 참가한 전남 화순 보궁 요양병원 임호진 원장은 연해주 거주 고려인동포를 대상으로 의료봉사도 실시해 최근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이주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연해주 고려인동포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

김재환 시민기자

국내 최초 스타와 함께 하는 '크루즈페리' 여행

한·중 수교 25주년 맞아 새로운 민간 교류의 장 통해 우호 증진 도모

쥘아만투어(대표 김진혁, 이하 크리스타)가 여행업계에서 최초로 톱스타들과 함께 하는 청도 크루즈페리 여행상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아만투어는 'With Star - 스타와 함께 신나는 선상퍼티'를 주제로 오는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3박 4일 일정의 청도 크루즈페리 상품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이번에 크리스타가 선보이는 청도 크루즈페리 여행상품은 3박 4일간 국내 정상 연예인과 함께 선상여행을 하면서 연예인과 함께하는 '선상 노래자랑 경연'과 청도 힐튼 호텔 특별무대에서 연예인이 펼치는 '한여름 밤의 청도 특별 콘서트'가 펼쳐진다.

아만투어의 크루즈페리 여행상품은 기존 크루즈 상품과 달리 연예인들이 3박 4일간 선상여행을 함께 하면서 공연 등을 통해 친교를 나누는 점이 마려돼 평소 유명 연예인과 시간을 갖지 못하는 여행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청도 도착 첫날밤 펼쳐지는 '한여름 밤의 청도 특별 콘서트'는 선상 크루즈페리 여행에 함께 한 연예인들이 자신의 애창곡을 열창하며 2시간동안 뜨거운 감동의 무대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



아만투어의 크루즈페리 여행상품은 기존 크루즈 상품과 달리 연예인들이 3박 4일간 선상여행을 함께 하면서 공연 등을 통해 친교를 나누는 점이 마려돼 있다.

오는 9월 23일 1차로 떠나는 청도 크루즈페리에는 방송인 최홍림과 안소영의 사회로 가요계의 대부 현철을 비롯해 이동준, 박일준, 임수정, 전미경, 이진관 등 국내 정상의 가수들이 함께 해 크루즈페리 여행의 품격을 더욱 높여준다.

크리스타가 주최하고 쥘아만투어가 주관하는 이번 크루즈페리 여행은 참 좋은 여행, 자유여행,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

어, 여행박사, 투어이전, 보물섬투어 등 패키지 여행의 선두업체들이 연합 판매에 들어갔다.

한편, 아만투어는 1차 크루즈페리 여행에 이어 오는 10월 7일 박현빈을 필두로 윤태규, 김상배 등 새로운 출연진을 구성하여 2차 청도 크루즈페리 여행에 나선다.

김미정 시민기자

사랑가족봉사단 어린이 여름캠프 개최

무등지역 아동센터, 한우리 아동센터 어린이 45명 중흥골드스파로 물놀이 다녀와

사랑가족봉사단(김혜정 단장)은 지난 21일 나주 중흥골드스파에서 어린이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이번 어린이 여름캠프에는 무등지역 아동센터, 한우리 아동센터 등 45명의 어린이가 함께 했다. 해마다 여름이면 사랑가족봉사단이 매년 진행하는 행사다.

이번 캠프에는 광주 남구청과 한전 서광주시사, 중흥골드스파와 광주지점이 도움을 줬다.

광주 남구청 최영호 청장은 "오늘만큼은 햇볕이 쨍쨍, 마음도 쨍쨍하기를 바란다"고 배움의 인사를 했다. 김혜정 단장도 "처음 물놀이 다니던 아이들이 자라라 중학생이 됐다"며 "눈정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기관, 단체와 봉사단원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사랑가족봉사단이 무등지역 한우리 아동센터 어린이들과 지난 21일 나주 중흥골드스파에서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김재환 시민기자

광주민중항쟁도 벽화복원, 안전 기원제 진행

9월 2일 제막식 예정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1호관 외벽에 있는 '광주민중항쟁도' 벽화를 복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18민중항쟁을 소재로 한 전국 '최초' 벽화이기 때문에 복원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민중항쟁도 벽화복원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19일 추진위 관계자 등 100여명의 추진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민중항쟁도 벽화 복원 안전기원제를 진행하였다.

안전기원제에는 전남대학교 용봉골을 상징하는 '용 머리'와 안전장비들이 상에 올라와 참여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추진위는 "1980년 5월 죽음을 낚아 들면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광주민중항쟁 정신과 조국의 만주·통일을 염원한 1990년대 시대 상황이 담겨 있는 광주민중항쟁도 벽화 복원을 시작한다"며 그동안 전국의 수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현재까지 800여명이 추진위원으로 함께해주었고 약 2,300만원이 모금되었다고 진행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추진위는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만으로 벽화 복원을 진행코자 하였으나 역사적인 벽화를 복원하는데 광주시광역시와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협조로 2,000만원의 예산까지 지원받았다"면서 "보다 알차고 섬세하게 벽



광주민중항쟁도 벽화복원 추진위원회는 지난 19일 추진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민중항쟁도 벽화 복원 안전기원제를 진행했다.

화복원을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안전기원제에 앞서 진행된 체험 마당에는 광주민중항쟁도 벽화와 똑같은 크기의 대형 그림 현수막을 제작하여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어린이들도 쉽게 채색 참여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벽화 외벽에 쌓아 올린 가설 구조물에 올라가 직접 벽화 복원 채색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5.18민중항쟁을 주제로 한 최초 벽화인 이 작품은 총을 든 왼손을 힘차게 뻗은 청년과 군용 지프를 탄 시민군 모습, 가마솥에 밥을 짓는 모습 등을 담은 광주민중항쟁의 공동체적 정신을 가장

극적으로 상징하는 예술작품이다.

이 벽화는 지난 27년 세월동안 단 한차례의 보수도 이뤄지지 않아 칠이 벗겨지고 색이 바래는 등 원형의 모습이 변형된 상태다.

이번 벽화 복원 사업은 전남대학교 민주동우회 의견을 수렴, 당시 작가로 참여한 최재덕(예술대 90학번)동우자문 등을 통해 실행하게 됐다.

추진위는 8월 28일까지 벽화 복원을 완료할 계획이며, 시민 누구나 벽화복원 채색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새롭게 태어난 광주민중항쟁도 제막식은 오는 9월 2일 오후 4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김세곤 전문기자

2017여성마을플래너 양성교육 개최

마을활동에서 성평등 의식 확산의 필요성을 위해 마련

"마을활동가를 꿈꾸는 여성들 모이세요."

'2017년 여성마을플래너 양성교육'이 오는 9월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엄미봉)이 주최한다.

올해로 3기째를 맞는 '2017년 여성마을플래너 양성교육'은 마을활동에서 성평등 의식 확산의 필요성을 위해 마련된 여성마을플래너 양성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은 프로그램 기간 동안 화·목요일 주 2회(오전 10~12시)씩 6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5일 오전 10시, '마을에 사는 나'를 학습하면서 프로그램은 시작된다. 이 강의를 통해서 나는 마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어서 7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동안은 '마을에 사는 우리'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게 된다. 광주광역시 서구(정의촌 서구마을공동체종합 지원센터장), 남구(민문식 남구마을공동체협력센터장), 북구(임선이 북구마을만들기 지원센터장),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을 꾸릴 예정이다.



지난 2016년 개최된 여성마을플래너 양성교육

이어 ▲ '히스토리&히스토리' (12일 김경래 전남대 사회적재생산연구단 학술연구 교수) ▲ '여성, 마을 어디까지 해봤니?' (14일 조이현인 풀뿌리 여성센터 바람대표) ▲ '여성, 마을하자!' (19일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사회환경연구실 책임연구원) ▲ '여성, 마을을 품다!' (21일 박영미 커뮤니티 이무다 공동대표) 등을 제목으로 한 강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엄미봉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공동체 구축을 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 뒤 "여성마

을활동가, 여성마을기업가, 마을활동에 관심 있는 여성이다. 여성마을플래너 및 여성마을 코디 2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며 "관심 있는 여성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비(선진지 견학참가비 별도)는 2만원이다. '2017년 여성마을플래너 양성교육' 접수는 교육기간까지 수시 진행되며, 광주여성재단 홈페이지(www.gwuf.or.kr)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여성재단 사업운영실(062-670-0536)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영 시민기자

"사방팔방 걷기로 건강 챙기세요"

주민 건강 위한 걷기 운동 프로그램

남구가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 생활 속 걷기운동 확산을 위해 운영 중인 '사방팔방 걷기마당' 프로그램에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사방팔방 걷기마당' 프로그램은 월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 대성초등학교에서 3개월 일정으로 기초체력을 다지는 파워 워킹과 율동 등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씩 진행된다.

걷기 운동인 만큼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대성초교 인근에 사는 남

구 관내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은 월산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관리실을 방문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 체성분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밖에 '사방팔방 걷기마당'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신체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일정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주민들은 걷기 실천율이 4% 정도 향상되었고, 특히 걷기를 전혀 하지 않던 주민들도 매주 2-3일씩 걷기운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요 건강지표인 혈압 및 혈당 수치 인지와 식생활 지침 인지도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남구 관계자는 "걷기운동의 경우 홀로 하면 자칫 지루해질 수 있고, 하루 이를 미루다 보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방팔방 걷기마당' 프로그램은 일정 시간대를 정해놓고 이웃과 함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가 더 증가하고, 더 많은 사람과 친분을 쌓을 수 있어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월산건강생활지원센터로 오는 9월 1일까지 하면 된다.

이혜규 시민기자

이 기사들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